

장학봉 동지 앞.

복락하신 나의 자서전은 이제 동행하여 보며 으짚거나,
저 앞 동행중에서 내장 소식은 들었으나 성철, 성철의 건강이
점점 밝는다.

우리모두 다 못 고리 앓습니다.

박갑용 의장에게서 아직은 아픈 소식도 없으니

네 내 건강하심을 기원하여 인사

16/10-957.

김성호.

자서전

나, 김상헌은 1909년 3월 5일에 연해주 을가지역 블라지머르 알렉산드롭
 스크의 공작령가촌 ^{민중의가정에서} ~~에서~~ 태어났다. 1919년 봄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후에 《대한독립선언서》를 부르는 운동대회가 있었다. 그 대회 이후 우리의
 이웃촌에서는 러 알렉산드르란 사람의 주동이 되어 우리지방 ^{남의아위리알라피}에서 4수환
 이 거행하던 러시아군에 즉응한 백색제산부대에 입대하였다. 이때는
 아사간도에서 조선인 독립군들이 《러시아 백색제산부대》
 들어가기야 중을 열수 있고 《러시아 백색제산부대》라고 그들
 은 백색제산에 입대하였다고 그 때에는 블라지미르 스토프도브란
 군이 주도하였는데 일제무장간섭부대 배설적으로 1920년 4월 4-5일
 밤에 백색제산 병사들에 공격하여 많은 백색제산이 리살되었는데
 아사간도 아사간도에서 《러시아 백색제산부대》 스토프도브역전 백색제산 《백색제산》
 후에 《백색제산》 되었다. 《백색제산》 1914년에 사망하여 나 《백색제산》 장
 상은 한천한 고아 들로 되었다

그후에 1920년 가을에 우리지방으로 《백색제산부대》가 들어
 와서 나는 그곳에서 《백색제산부대》 1920-21년에 수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거기 시작하였다. 그후에 1927년에 《백색제산부대》에 입학하였다.
 나 《백색제산부대》 《백색제산부대》 2학년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 공청
 야체시가 책임에서 《백색제산부대》 되었다. 이때에 《백색제산부대》 공청 단체에서 농업
 단체인제가 강력히 나왔다. 이중에 공산정권 4월으로 야체미가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비서는 우리학교 교장인 《백색제산부대》
 그의 지도에서 나와 지방공청사체가 비서 《백색제산부대》 공청원들을
《백색제산부대》 1929년 봄에 《백색제산부대》 《백색제산부대》 《백색제산부대》
 직위에서 《백색제산부대》 되었다. 그때 이공청사는 《백색제산부대》 개인농민
 가의 《백색제산부대》 선취권 되었다. 1930년도에는 이 지방 각촌에 전반기

나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처자 돌아다니고 과목차에 얽혀 우스베기쓰간
 쓰베드니 권역구역 수저지 드이찌 빠르 왔다. 여기서 나는 우스베기쓰간 공
산당 중앙위원회 과목차로 노라는 공지를 받고 거기서 참사관 다복장은
안동라에 보냈는데 그때 그 방류 교육위원회 (교육청)으로 임명
 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나와 안화하고 나를 교육위원회의 정신학의
 교수를 시학으로 임명하였다. 이 때는 원동에서 강제적각 의제들의
 온 조선인학 생들을 공부하게 하는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다. 어대
 소학모를 원동 어대어 중학모를 원동 어대어 고등모를 원동 어대어
 하여 어대어 치라는가 하는 조선인학 문제를 과 과 사 등 문제가 제기
 되었다 그리고 교사건, 학 교 우 지 비 선 등 문제는 제기되었다. 이 문제
 들을 해결하려 1938년 북 북 리는 조선인학모들에서 수 합 지 시 작 되 었 다.
원동에서 각 주 원 조선인 사 발 대 학 중 학 생 들 을 초 대 하 며 서 해 결 하
였다.

1942년에 나는 조선에 초 보 되 었 다. 제 25 호 정 치 부 의 지 도 원
 으로 (구수정리는 정치지도원) 사 원 하 나 가 중 심 해 련 으로 제 대 에
우스베기쓰간 쓰베드니 권 역 구 역 제 신 정 권 공 회 스 에 서 당 부 로 의 의
 사로 사 원 하 며 서 중 심 제 획 실 행 과 전 선 인 화 사 업 에 당 원 들 과 공
 고스원들을 조 직 당 원 하 는 사 업 을 하 였 다.

1945년 가을에 다시 조선에 초 보 되 었 다. 북 조선에 주 둔 관 장 으로
 제 25호 제 40사단 정치부의 상 급 지 도 원 으로 사 원 하 였 고 나 는 조선
 기관지 <조선신보> 사에서 사 원 으로 일 했 고, 간 부 학 교 교 원 으로 일 했 다.
 1948년 가을 조선에 조 국 으로 전 수 한 과 관 련 하 여 조선 로 동 맹 중앙
 위원회 보 좌 에 의 하 여 조선 로 동 맹 중앙 위 원 회 의 의 의 로 나 는 조선
 신로 동 맹 의 교 정 사 업 으로 일 어 갔 다. 그 리 하 여 조선 로 동 맹 중앙 위 원 회 는
 나를 간 부 학 교 부 위 원 장 으로 임 명 하 였 다. 여 기 서 의 제 정 관 략 을 반
 대한 조선 로 동 맹 전 진 을 말 했 다. 그 리 하 여 조선 로 동 맹 중앙 위 원 회 는 조선 에
 6

인민경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동원하는 것
이었다

1953²년에는 나를 내각 간부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1953³년에는
내각을 중앙공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나는 간부학교 사업에
서 공헌으로 ~~내각~~ ~~교장~~ 직책을 수여받았다.

1954년에는 나를 내무성 부상관 정치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내가
임명되기 직전에 내무성 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직원이 있었다.
그 직원에 내각 간부학교의 중요한 점들과 이관위원, 간부성위원,
내무위원들의 비행들이 적발되었고 그것을 폭로 처분할 파업들이 제사
되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 ~~부상관~~ ~~정치국장~~으로 선거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본하의 임무로 되었다.

내가 내무성 정치국장으로 임하는 기관 내무성 ~~정치국~~ 사업의 일체 관
련을 피하지는 못하였지만 이관위원, 간부성위원, 내무위원들의
비행은 철저히 축소되었다.

1958년에는 나는 정정위원회 조종국 수석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는 본성을 심원한 조종위원 지위권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데였
다. 그러므로 나는 주미정점관관제서 조종지위권이 철수하였으니
미국도 조선에서 물러가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
측이 38도선에서 정정위원회를 취재하는 사실에 대하여 양국 양관
시 폭로극한 하였다.

이렇게 사업하다가 1959년 여름에 나는 ~~사련~~으로 돌아갈 것을
제기하여 관리는 정정위원 김원삼에게 제출하였는데 그가 허락하여
1959년 11월에 ~~평양~~ ~~사련~~으로 출발하였다.

나는 예브고라드에서 화사 공화국을 공로년 인생이 되었고 주택
으로 받고 지르까지 살아가고 있다.

나는 1924년에 공화동맹에 합류하였고 1930년 ~~4~~월 4일에
조선혁명공산당 (불세력) 대원에 임명되었다. 재판, 당 활동

정적 책벌을 받느니라.

1930년 봄에 플르사-공가에서 그친 농민의 딸 김 누제스가 극히
미조나바 결핵을 하였다. 우리에게서 아들 하나와 딸 3형제가
남는데 그들은 다 레노그라드에서 대학들을 졸업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데 딸 둘은 벌써 퇴근생이다. 누제지 손자 2명, 손녀 3명이
있고 증손녀 2명이 있다.

아들 두명은 공학 학사이고 판학 연구수 상급과학원이다. 누제
지는 형제라고는 동생 강삼진이 있었는데 그는 ~~판학 연구수~~ 우스베이션
이란 지미안로브형집 플르사에서 농민집으로 왔을 때 삼려의 사위
의 권력연출을 받았다. 그는 딸 누제지에 귀환할 증으로 장기간
고통하다가 사망하였다.

강삼진

강상호 자서전

1909년 3월 5일 러시아 연해주 수창구역에 사는 농민 강해준의 장자로 태어났다. 제2세의 한진 이인이었다. 아버지 강해준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한 후 다른 한진 3명과 함께 연해주에 참전한 일본목장사살운동사투기 위하여 러시아인 빨치산 부대에 편입하였다. 1920년 4월 4일 밤 블라지위스토크 근처인 스코도보 전역에서 전사하여 그 시체는 다른 빨치산 전사자들과 함께 스코도보 역정에 있는 합장묘에 안치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1917년에 사망하였다.

고립무원한 고아가 된 나는 1920-1922년간은 한진 빨치산 활장전 부대의 후견으로 소학교 3학년울 졸업하고 1923년-1925년 간에는 고포의 집에서 5년제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학비란으로하여 상급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고 고포의 집에서 그 집 농사일을 돕다가 1927년에 공청단체의 후견으로 연해주 수창구역 육성 농민청년 학교에 입학하여 국어로 공부하고 1930년에 그 학교를 졸업하였다.

1930년에 수창지구 공청 동맹은 나를 그 지구 공청위원회 책임직으로 선지하였다. 1931년에 원동공산대학 당파에 입학하였다. 이 대학을 졸업한후 1934년에 원동변검 공산당위원회의 후견으로 우수 리스크 시당 위원회 장사로 선출되어 일하다가 1936-1937년에는 원동변검 당위원회 직속 뎀스-레노프의 국원에 입학하여 그를 졸업하였다.

중앙당위원회는 이를 면해줄 때에 이르러 공청위원회 책임회로서
 인정을 받아 거기서 일하다가 1934년 9월에 원동변기에서 살던
 관의 전복후 관에게 강제 이주로 타수 권으로 실패했다.

이때 원동변기 강제 이주만 한인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예리하
 게 나왔다. 산비른 정부는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였
 지만 학년 아동 홍씨, 교원인재, 교다사, 교원물, 학교청사 등 문
 제 해결은 강제이주 처할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었다가 그리하여 우
 스페르 공화국 내각은 교육성 문제에 관한학교 단합 시학관의
 직책을 참가하고 그 책임자로 나를 임명하였다.

1943년에 소련에 참모되어 연해주 우수리시 주재 25군 정치부
 지도위원으로 일하다가 (계급은 소위) 특별 명령으로 제대하여 타수 권은
 주 체보영장 관료스 당위원회 비서로 일하면서 특별 명령을 지켰다.

1945년 10월에 타수 권은 주 사사 동원부의 참모에 의하여 평양주
 재 소련 25군에 파견되었다. 25군 정치부는 나를 관료로 주재 소련
 40사단 정치부 상급지도위원으로 임명하여 일하다가 1946년 3월
 에 25군 정치부의 소환으로 관료에서 평양으로 옮겨 가서 내각각속
 간부학교 정치경제학 교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학교 명칭은 내각각
 속 학교이지만 제각각에 의하여 재질, 교육과정, 교원, 운영은 소련이 직접
 하였다. 이때 나의 직사장은 소위 (소장 3)였다.

1948년에 소련이 북한에서 철거할 때 관련하여 나는 이때 소련에서
 제대하였고 나의 지부에서 의하여 소련공산당에서 제직하고 조선공산
 당으로 입적하였 으며 소련공산당에서 조선로동당으로 전입했다.

1949년 여름에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나를 내각각속 간부학교
 에서 소환하여 강원도 군동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나는 동족전쟁인 6.25 동란을 겪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 북조선 내각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6.25전쟁을 10

비주하노 력이었다. 김일성 주석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 6월 24일
 밤 12시 국방군이 38°선 전역을 동해로 북진하였으므로 자기가 최
 고사령관으로서 반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언급하고 이 반공적
 전을 본 내각회의에서 비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각회의는 일치
 가결로 그 제의를 비주하였다.

나노이때 상투 참가인의 목전, 각종 보도수단을 통하여 남한이
 북진을 중지하고 왔다고 생각했고 관공 내 통령 이승만은 북진을
 주장하면서 북조선의 온갖 평화제안을 거둬하고 있는 것은 자
 국무장관 김일성이 남한에 이르러 북진을 지시했다. 다음 등 본
 도를 쫓았다. 그러하여 6.25 동전이 시작된 3일후 즉 6월 28일
 에 나노 38°선까 완전한 지방 시찰을 마쳤다. 철차진, 관하진
 리, 철차진 시찰하였는데 아무런 전쟁의해도 발견하지 못하였
 다. 포탄이 떨어진 구덩도 허물어진 건물도 삼삼구구로 북상하
 는 모든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측 보도에 의하면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철차진 물어 왔다가 인민군의 반공적에 의해 쫓겨 갔다고
 했다. 38°선 점령지 방주면물과 그런 사실은 물으면 그런 일은
 없고 인민군만이 남진 했다는 것이다. 때 문에 나노 학자에서
 때 나-출전을 행하여 나가면서 전투장을 살펴 봤다. 출전으로
 나가면 철 산구비 구비 마나에는 국군의 화전물이 있었고 그 결과
 는 포탄이 남가리처럼 쌓여 있었다. 그러나 포탄이 채워는 없었
 다. 이것은 국군이 포탄을 써 보지도 못하고 인민군의 불의의 습격은
 받고 후퇴했거나 전사했거나를 말하여 주고 있었다. 이 시찰
 에서 나노 국군의 북진설은 세 발자 기장 말이고 인민군의 남진이
 것은 확실히 되었다.

1951년 여름 나노 회령이 발작하여 평양에 있는 소련 적십
 자병원에서 일개월 치료를 받은후 평양 중앙위생회의 소환으로
 내각 직속 간부라고 교장으로 임명 되어 일하였다.

1953년 1월 1일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나를 내각직속 간부학교 교장에서 중앙 대학 교장으로 전직시켰다. 1953년에 조선전쟁은 휴전되었다. 당중앙위원회는 나를 내무성 부상 전-정계주장으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일할 때 나는 박헌영 숙청 운동당회-분청 소련과 숙청 연안과 숙청 운동을 활약하였다.

간일생은 왜 박헌영을 숙청해야 한 것인가? 그것은 6.25 동란이 끝난 이후 북한 교외로 간부들 중에서 내무성 박철우, 삼남성 장시후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원 등이 6.25 동란을 조장한 책임과 이 동란에서 인민군이 재배한 책임은 간일생에게 ~~부~~ 주 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간일생은 그 책임을 박헌영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박헌영을 숙청해야 하며 또 자기의 감수력한 정적이며 정쟁자이기 때문 에 그를 숙청해야 한다고 박헌영은 주재공산당과 국내 공산조직가들이 공산당과 조선공산당의 조직자이고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 간일생은 동북 방위전선장이며 일본 광둥권을 격파하고 북조선을 해방했다는 공적을 자랑하고 있다. 그것이 폭로 될것을 두려워하여 (물론 그 공적을 자랑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 자기의 정적 박헌영이 잠정할 수 있는 것을 예감하고 그를 숙청하였다.

그러하여 1955년 12월 15일 평양 내무성 2차 부처가 박헌영 재판을 위하여 내왔다. 이 재판에서 박헌영은 피고인이며 조선혁명의 해방투쟁 선구자이고 사형판도를 발원하였다. 내가 이 재판장에 참석하여 직책을 보고도 피살처장 수장 목적을 위하여 말야 할바에 의하면 피고인인 조선혁명의 해방투쟁 선구자의 아무런 죄도 없었다. 재판이 있는 다음 날 평양의 여러 신문이 박헌영을 총살했다고 보도하였지만 사실은 그때 총살하지 않았다. 박헌영이 간첩이요 해방투쟁 선구자이기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에 간일생은 내무성 부학사에게 명령하여 박헌영을 총살은 중지하고 피살을 계속하라고 했다.

박헌영을 숙청하기 위해서는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재료를 필요로 하였다. 그 재료를 남조하기 위해서는 남조당 간부들의 사상검토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남조당원 수백명에 대한 사상검토가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박헌영 측근자들의 사상검토에서 그들에게 많은 별저사실을 남조하였다. 즉 이승만은 일본전쟁이 패국으로 패국전첩 그외의 가혹물은 조선혁명에 해독자로 남조하였다. 이렇게 때문에 남조 그 모든 책임이 박헌영에게 있고 그에게 넘겨져 있었다.

김일성은 남조당원 수백명을 강고의 숙청한 후 소련과 숙청을 시작하였다. 이때는 소련당 총서기 니키타 흐루스초프가 스탈린의 개인승배를 비판하고 그 후파를 찬성하는 때였으며 동거였기라 공산당에서도 개인승배를 비판하고 그 후파를 지지하는 시기였다. 이 때 김일성에게 불의의 특검의 세력이 현양까지 발전되어 왔다. 김일성에게 불의의 특검이란 이런 때 김일성의 가장 위험한 적수는 조선노동당 내에 있는 소련과 같은 이념적인 김일성은 소련과 숙청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때 소련과의 리더격이었고 김일성의 정적이고 경쟁자로 인정하면 허가하는 이 때 김일성이 처한 지반 그 외에는 많은 흐루스초프의 숙청주의자들(김일성도 소련을 찬성당원들을 지향하게 하였다)이 조선노동당 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숙청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 후파 박정우 복수생 박의완 부수생 고현만 ~~박정우~~ 김일성, 최정환 이등군 동원기국장, 서호식 도당 위원장 최만도 당 위원장 박정우 도인선위원장 기타 50명이 숙청되어 일부는 형살되고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굶어 죽었다.

1945년 한반도의 광복이후 중국에서 일제군을 반대하여 조선해방독재정을 건설하기 위하여 혁명가들이 연산을 걸쳐 광양으로 수백명이 들어왔다. 이 들중에는 독립운동의원장 장덕흥 위원 박일우 최정우 목장 최정수 김창환 사회 ~~유공회~~ 등이 들어 있었다. 연산부에서 사회 유공을 ~~박정우~~ 등이 8월전연회때에서 김일성에게도 개인승배가 있었고 비탄한 다음 연산라는 전국 분당회와 같은 관청

문 씨위서 수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상에 기록한 수필사상은 내가 1953년 부터 1958년 까지 내무성
부서 간접조직으로 일하는 동안 내가 목격했고 치열하게
수필사의 관 도박인 것이다.

또한 나의 수필이 지어 글은 특별히 1958년 초에 당중앙위원회 하도당
을 내무성에서 개성 관공실 국사정전위원회 조영주 수석 대변으로 관공
하였다. 이것이 영적이 아니었다. 장일성의 관공 수필 데려와 찬가하
여 그것을 집행하는 내무성 부서가 흐루스초트의 수필주의자-개성화자
만이 있었다는 장일성에게 알려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내무성 정치
국장으로 활동할 때 내무성 신문에 <개성화자는 흐루스-체노프의와는 아-모이관
라고 한다> 라는 문장을 발표 했기 때문에 나에게 <흐루스초트의 수필주의자>
라는 낙인을 찍어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를 정전위원회 조영주에게
정전위원회에서 나는 부서의 정지에 관여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정전협정
조각을 정국이 주도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것을 정전위원회에서 관으로
라 노에와 취조했었다.

1959년 4월에 내국 수필의 정량이 위하여 나는 정전위원회의 수석대변
의 자리에 개성화자 수필전로의 비상으로 잡혀 왔어 있었다 당중앙위원
회의와 내무성은 나를 수필을 재발 수필에 화를 하였다. 그리고 1959년
8월 중순부터 나의 수필전로를 내가 일하던 내무성 정치국에서 시작
하였다.

내무성에서 나의 수필전로는 아재와-같은 정지라 하였다. 처음 나를
감토한 것은 내무성들에게 불만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상급당부에 내무성 방
정할 수 회의록 소집하고 거기서 내가 당살에 정은 별죄에 대하여 자
백하 라는 것이다. 그 다음 목격는 정치국 어느 한 방에서 나를 감토하
는데 정일성은 한곳에 나 형식이였다. 중상권한 2명 수필전로
방에 4명이였다. 이들은 8시가후에 나를 감토하고는 다음 그가
고쳐한다. 교체는 1경야 3차한다. 나에게 는 3대역은 사건은 주가
자는시간은 없다. 감열원들은 의자에 앉아서 전후하고 나는 일주야

장준하 씨에 관한 단편을 자기 뜻해서 계속 읽고 싶었고 내가
자신지 갇히는지 하는 것이 더욱 걱정스러웠다. 나에게도 구치소에 갔었다.
한 경찰원이 자기 사무를 뺏아 놓고 나를 구하려 했다고 의뢰도 했
으나 결국 지체는 못했다.

나의 장편의 경우부터는 내가 대대적으로 그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이었다. 내가 장편구룡에 참가
한 일이 없던 것은 여러날 계속 걱정하니까 그 다음 특사는 구룡이
없던 사실을 알려주어 내놓고 그 것은 내가 인정해 줘야 했다. 여섯
달만 두개의 문헌철을 내놓고 하나는 외국에 가서 장준하의 저술
서 읽어라 하고 다른 문헌철은 중앙대학교 국학의 저술서 읽어라
하면서 그 두사건은 나에게 흡수 되어 내가 사적인 대대적 과업을
했다 하는 것이다. 이때 나는 말하기를 자유혁명의 필적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그 자백서를 나에게 보여 주면 허락은 어떻게 하겠냐 하면
사히 말하고 오셨었다. 그랬더니 필적이란 대역이 오느냐 거머져
있고 제가 장은 죄를 자백하라 그 때만 당은 관대히 처할 것
이다. 라고 했다. 또 다른 날은 1954년 8.15 기념 경축 대회(중추
위원회의)에서 전 민족적 투쟁 박은희와 내가 같이 있어서 기념연대
에 나서서 장준하의 목숨을 구해 주어야 처분할 것을 내놓고 도와
주는 것이다. 이런 기념연대 회의에는 민족의 정리 필적 노모자(오리
시, 의수, 정복(수복)까지 참가하는 회의에서 그런 중대 비담을
나놓고 나의 할 수는 없다고 부정하였다.

내가 민족성에서 말하던 강령회의를 모스크바 가서 특사에게
영사도 알리고 그를 통해 소련어에 가서 가 관련할 게도 있었으나
그가 회의에서 의하여 장준하를 다루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자백해 줘야 했다. 나는 특사 강령회의 회의 비담을
알려 주었다. 그 때에 해서도 어 물어 보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나를 크게 말초 장편을 썼는데 마지막 시기와 다리가 부었고
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쓴 것이다. 그랬더니 원제 특사는 전사까지

말해도 좋다고 했어. 나는 눈으로만 보았어. 너도 나와 같이 생각해 봤어. 말하셔도
사려지지 않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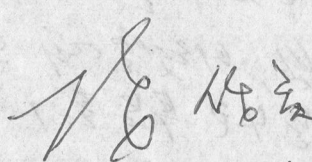
이렇게 나의 가장 큰 잘못을 1959년 11월 초까지 하고 하마는 뽕나무 새싹을
꽃을 피우려 하다가 내가 반공그룹에 참가했다는 것은 확증되지 않았고
나도 사실적으로도 진실성의 주체사상에 위한 것도 공작사찰부의 수정주의에
모순된다. ^{대부분}이것을 통해 사상을 개변해서 ~~한~~ 하고 하고 공작으로
로 변해 갔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반공세력을 변이해서 이런
상반선으로 행동하기는 불가능하다. 소련에 가서 동생의 희망가
쪽으로 살지 해 말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수정주의의 부정적
은 가치 차라고 소련으로 귀환할 것이 허락 되었다.

1959년 11월 중순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레닌그라드에서 기점으로
하는 중년의 집까지 북방가족으로 살아가는 일이 해결되어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다. 4

나는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신문에 진실성의 승천 ~~해~~
해관성적에 그의 배후행위를 폭로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기자회견의 인력 비가 여러 진실성의 시습과 조화
그들의 죄상을 폭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모든 북조선에서 한양 양한 국가적 차이를 북외관장이
이러한 진실성을 통해 극적 개선의 장으로 서가 되어 북조선의 처단 동무가
해관과 기관에서 해방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5년 1월 16일
성 해에 르북르그에서

 송호
(강상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촬영
1954년 촬영.